

1977년에 미국엘 갔다가 15년만에 고국에 돌아오니 정말 많이도 변해 있었다. 강북도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옛시가지와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그런대로 알만했다. 그런데 강남은 전혀 새로 태어난 도시라서 철저히 새로 배워야 했다. 그래도 옛날 중학교때 용산에서 경기도 광주군의 한 시골에 사는 친구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말죽거리를 지나 옛골에서 내려

미국에서 10여년 머물렀던 연고로 그 사고의 패턴이 아주 다름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음이라.

일례로 이 곳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하면 대개 이런 대화가 오고가게 된다. “어이 지박사, 오늘 저녁 7시에 00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 “00호텔이 어디지?” “아, 강남 전철역 지나 쪽 올라가면 신사역 지나 한남대교 건너지. 다리 지나서 왼쪽의 큰 빌딩이

과학의 생활화, 생활의 과학화 길이름을 붙여주자

“서울은 길찾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한마디씩 한다.
우리도 모든 길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길에 이름표를 붙여 서울의 거리가
無名에서 芳名의 거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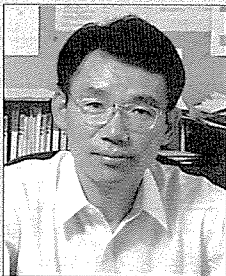
달래내고개를 걸어서 넘어갔던 기억은 남아 있는데 그 아련한 기억 속의 말죽거리가 지금은 지하철 역명으로 양재가 되어 하루에도 수만명이 타고 내리는 강남의 중심지중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길찾는 기준 너무 '모호'

그런데 지하철 강남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뻗어있는 길은 테헤란로라고 부르는 특이한 이름이라서 금방 기억할 수 있었다. 남북으로 난 큰 길 이름은 강남대로라고 하는데 서울 시민중에 강남역은 알아도 강남대로를 모르는 사람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는 어떤 위치를 말하는데 있어서 선(線)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있는 어떤 위치 즉 점(點)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알게되었다. 아마도

00호텔이야” “알았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길찾는 기준(reference)들이 강남역, 신사역, 한남대교 등 점(點)들로 되어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내가 공부하던 곳은 옥수수밭과 콩밭이 끝없이 펼쳐져있는 일리노이주의 한 시골에 묻혀있는 캠퍼스타운이었다. 우연히 시카고에 고교동창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되어 찾아가기로 작정하고 전화를 건다. “00이!, 이번 주말에 자네 집엘 놀러 갈까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면 되지?” “좋지. I-57번을(I는 Interstate Highway를 나타내는 글자) 타고 북쪽으로 쪽 올라오다 I-80을 가로질러 약 5마일을 더 오면 Giant Exit가 나와. 그러고 빠져 나오면 그 길 이름이 Giant대로라구. 그 길을 약 2마일 따라가면 Large 스트리트가 가로지르는데 거기서 좌회전해서 약 반마일 지나면 Small lane이란 조그만 길이 나와. 거기서 우회전해서 왼쪽편의 셋째집이 우리집이야. 번지수가 123 N.Small이지” 여기서 우리는 모든 길 안내가 길이름 위주로 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네 길 안내는 어떤 곳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 00빌딩 있잖아” 하고



池在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연구실장〉

양쪽 사람이 함께 이는 장소를 정한 후에 그 점(點)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오도록 인도한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지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길 안내를 하는데 평면좌표상에서 선, 즉 길 이름으로 하고 있다. 이런 안내를 받으면서 캔사스주에 사는 형님댁, 뉴욕의 친구집 등등을 어려움없이 찾아다니곤 했었다.

합리적인 평면좌표법

나도 15년 타향살이에서 서울 집에 돌아온지 3년에 이젠 제법 서울지리를 깨쳐 어디가 어딘지 대충 감이 잡혀가고 있다. “감이 잡힌다”라고 한 것은 머리 속에서 어디를 어떻게 가면 되는지나 혼자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다. 내가 일하고 있는 우면동에서 올림픽공원에 가려면 윤봉길의사 기념관 앞을 지나 양재 꽃시장 앞으로 나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쪽 가다보면 삼성의료원, 농수산물도매센터를 지나고...

모든 것이 기념관, 꽃시장, 도매센터 등등 점, 점, 점으로 연속된 그림을 그린다. 나 혼자는 알 수 있지만 지리를 전혀 모르는 남에게 가르치기에는 지극히 부적합한 파편들인 것이다. 길 이름을 알고 있고, 또 길에 길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면 나도 좀 더 확실하게 기억하고 남에게도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을텐데.

아마도 비교적 오래지 않은 과거의 사람들도 어디를 가고자 하면 이러한 점의 사고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좌표법이 발명된 것이 불과 1600년대의 일로 그때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데카르트(Renè Descartes, 1596~1650)에 의해서 발명되어 지금

도 Cartesian Coordinates라 불리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이 간단한, 초보적인 개념이 좌표법으로 정착되는데 초기의 잘 알려진 수학자인 피타고라스(Pythagoras, 580?-500? B.C.)로부터 계산해봐도 2000년 이상이 걸렸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이 좌표법을 이용해서 해석기하학이란 수학의 분야를 열어 대수와 기하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좌표법의 기초 개념인 평면(또는 공간)상의 한 점을 나타내는데 x-y를 축으로 해서 x방향으로(즉 x라는 길따라) a거리만큼 또 y방향으로(즉 y라는 길따라) b거리만큼 가서 만나는 점으로 나타내는 이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활용하면 여러모로 이로울 것이어늘 아직도 잘 되고있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 위치를 정하는데 아직도 무차원상에서 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전근대적 사고방식때문이라.

点에서 線으로 바뀌어

이것을 바꾸자면 원론적으로는 우리의 사고패턴 즉 패러다임을 한 차원 높여 점의 사고에서 선의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길에 이름을 주고 그 길에 이름표를 붙여 주어야 한다. 큰 길에는 이미 이름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이름표가 없으니 알 수가 없다. 강북에는 종로, 을지로, 청계천로, 퇴계로 등이 있고 강남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테헤란로(이름을 바꾸는게 어떨까?), 강남대로, 양재대로, 남부순환도로, 도산대로 등등 이름이 있지만 정작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도대체 길 이름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다행히(?) 가끔 나타나는

길 표지판을 보면 길 이름이 아니라 건물 이름이 대부분이다. ‘서초구청’, ‘영동세브란스병원’, ‘법원, 검찰청’ 등등. 바로 여기서 점의 사고를 볼 수 있다. 이런 안내판은 정말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정보만을 줄 뿐이다. 한번 기본 곳이라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여 건물 이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으면 헤맬 수 밖에 없다. 서초구청이 남부순환도로와 강남대로의 교차점에 있다고 알려주고 길 이름을 잘 표시해 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 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아직도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크고 작은 길에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을 부여하자. 사연이 있는 길엔 사연있는 이름을(달래내고 개길처럼), 역사의 향기가 서려있는 길엔 그 향기가 피어나는 이름을 주고 또는 남쪽부터 북쪽으로 가나다순으로 이름을 주든지 하고 이 길에 이름표를 달아주면, 길이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정다운 길이 되고 그리하면 이 곳 지리에 낯선 사람이라도 어디든지 어려움없이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이제 2000년을 눈 앞에 두고 세계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세계화를 높이 외치고 있는 세계 속의 한국, 세계인이 함께 뛰는 무대가 되어가는 서울의 거리 거리가 무명(無名과 無明)의 거리에서 방명(芳名)의 거리, 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거리, 그리하여 찾아가고 찾아오기 쉬운 거리를 만들자.

“오늘 저녁에는 고구려대로상에 광개토대왕로가 만나는 데서 북쪽으로 오른쪽에 세번째 집인 안시성회관, 고구려 123번지에서 7시에 만납시다” ①